

##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 정 은 ·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주장성, 공격성,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부부간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부 146쌍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주장성, 공격성,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부부간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를 측정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에서 자녀수, 학력, 직업 및 연애결혼 여부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간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남편의 주장성 및 아내의 공격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군집분석을 통해 네가지의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들(상호건설적, 요구철회, 전투적, 소극적 긍정)이 확인되었으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패턴을 보이는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보이는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부부가 중심이 되는 사회 기본단위인 가정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남녀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 발전한다. 가정 인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부부가 함께 생활해야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또 부부들은 부부 외적인 여러 변인들이나 환경변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되고 이로 인

해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부는 갈등을 잘 극복하고 서로에게 잘 적응하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적응에 실패하기도 한다.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배우자들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결혼 생활에서의 고통이나 불안정한 결혼생활은 배우자들의 신체적, 정

\* 본 논문은 두 번째 저자의 지도하에 첫 번째 저자가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것이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영 호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 FAX : 032-340-3275 / E-mail : yhlee@www.cuk.ac.kr

서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Karney & Bradbury, 1995). 또 불행한 결혼 생활은 부부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남기게 된다. 서양의 경우에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심리학자들이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이혼율이 증가하고, 가정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가정과 결혼, 그리고 부부생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결혼과 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관계의 질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는데, 초기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후에는 역할기대와 의사소통, 애정 같은 상호작용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 일부 연구는 내외통제성(현은민, 1995)이나 신경증 경향성(안수진, 1996)같은 개인특성이 결혼 관계의 질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렇듯 과거에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격, 정서, 인지 등의 개인 내적인 변인들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양식 같은 부부 상호작용 변인과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환경 변인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서양의 심리치료 전통에서도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부부치료, 가족치료 등이 보편화되면서 한 개인보다는 관계 자체를 문제의 단위로 치료의 단위로 보는 관점들이 유행하게 되었다(김계현, 1994). 또한 연구가 거듭되어 갈수록 여러 영역의 변인들과 결혼만족이나 적응간의 단편적인 관련성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의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결혼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Bradbury와 Fincham(1988)은 맥락모델을 제시했는데, 이는 결혼관계를 더 광범위한 대인관계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부부관계도 다른 대인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 내적 과정과 대인간 과정이 통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부부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결과로 결혼생활의 질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Karney와 Bradbury(1995)는 결혼에 대한 117개의 중단적 연구결과들을 분석해서 결혼기능모델을 제안했다. 그 결과로 결혼 연구에서는 결혼의 성과, 적응과정, 지속되는 각 개인의 취약성,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결혼의 성과는 결혼만족도나 결혼적응도를 말하며, 적응과정은 배우자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때, 변화를 다룰 때 서로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적응과정은 사회-학습적 입장에서 강조되어온 변인이고(Bradbury & Fincham, 1988), 지속되는 각 개인의 취약성은 각 배우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안정적인 인구통계학적, 역사적, 성격적, 경험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상황, 사건, 만성적이거나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들인 생활사건 스트레스들을 말하는데, 위기이론가들이 이것들이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Karney와 Bradbury(1995)는 이러한 영역들을 함께 다루는 것이 결혼생활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에서 특히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이 포함되는 대인간 과정 영역은 사회-학습적 입장이나 인지-행동적 입장의 연구가들에 의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오던 영역이고, 다른 영역들보다 결혼 결과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의사소통 기술-결핍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배우자간의 갈등 유발의 원인을 한 배우자나 두 배우자 모두의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이라고 가정한다. 자신들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기술이 없는 부부들은 자신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덜 만족할 것이고,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덜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Burlison & Denton, 1997). Jacobson과 Margolin(1979)은 고통을 받고 있는 커플들이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부족한 면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부정적인 부부간 상호작용이 행복한 결혼생활에서보다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더 빈번하다는 것이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다(Gottman & Krokoff, 1989). 국내에서는 부부가 문제 해결 시에 나누는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었다(고현선, 1995).

한편 Christensen과 Sullaway(1984)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부부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가지게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했다. 이들은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를 제작하였고, 의사소통 패턴을 세 가지(상호 건설적인 패턴, 상호 회피 패턴, 요구-철회 패턴)로 나누었는데, 이중에서도 요구-철회 패턴(demand-withdraw pattern)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요구-철회 패턴은 배우자 중 한 명이 파트너를 비난하고 불평하거나 혹은 변화를 제시하는 대화를 시도하고, 그 동안 파트너는 대화를 끝내려고 한다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대화장소를 떠남으로써 대화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Christensen과 그의 동료들(Christensen, 1987, 1988; Christensen & Shenk, 1991; Christensen & Sullaway, 1983;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은 자신들이 요구-철회 패턴이라고 명명한 특정 의사소통 유형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보고하고 있고,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패턴이며, 결혼의 질과 결과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 패턴에서 주로 여자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남자가 철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현상을 보고 그 이유를 밝혀려고 노력해왔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반복검증되었고, 이와 비슷한 유형이 결혼관계에 있어서 역기능적이고, 결혼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들의 특정 패턴이라고 보고하는 연구자들도 있었다(Noller & White, 1990).

그 동안 국내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의사소통 유형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이정순, 1991),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고현선, 1995; 임승락, 권정혜, 1998),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 하는지를 알아보고, 결혼만족도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 부부들 사이에서도 요구-철회 패턴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패턴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것이 부부들의 적응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주장성과 공격성,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부부 의사소통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각 의사소통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주장성은 의사소통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인이며, 주장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자기표현 기술로 알려져 있다. 주장성이란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넓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폭넓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의견, 요청, 또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익숙한 사람을 말한다. 주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격성과 비슷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주장적인 사람들은 서로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만, 공격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에만 집중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또한, 주장적인 사람들은 우호적이고, 적극적이고,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김인자, 1986). 주장성과 공격성간의 관계는 최근까지 애매한 입장이었다. Albert와 Emmons(1970), 그리고 Lazarus(1971)는 주장성과 공격성을 구별했고, Bandura(1973)와 Staub(1971)는 주장훈련을 통해 적절한 자기 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Lee, Hallberg 및 Hassard(1979)도 주장훈련을 받은 공격적인 청소년들이 주장성에 있어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으며, 자기보고에 의한 공격성이 다소 감소됨을 발견했다. 이 밖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주장성 훈련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이현경, 1992).

이와 같이 주장성과 공격성은 대인관계 특히 가까

은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부부간의 의사소통도 부부 각각의 주장성과 공격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의사소통 보다는 요구적이거나 손상적인 의사소통을 더 자주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장성이 높은 사람은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손상적이거나 회피적인 의사소통을 덜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장성이나 공격성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떤 변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결혼만족도에 대인간 과정인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개인 내적 특성인 주장성, 공격성 및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패턴을 가진 부부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방 법

### 피험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부 220쌍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해서 160쌍의 자료를 수거했다. 수거된 자료 중 14쌍의 자료는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한 배우자만이 응답을 하여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146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에 포함된 전체 피험자 292명의 평균 연령은 34.60(표준편차=5.73)세였고, 남편의 평균 연령은 36.06(표준편차=5.81)세, 아내의 평균 연령은 33.16(표준편차=5.28)세였다. 평균 결혼 연한은 7.47(표준편차=5.35)년이었고, 범위는 1년에서 25년까지였다.

### 도 구

####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측정

기존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변인들을 선정해서 질문지를 작성했다. 질문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하나는 개인 변인으로 두 배우자가 다르게 갖고 있는 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가 공통으로 갖는 변인들로 부부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개인 변인으로는 연령, 직업, 학력을 측정했고, 부부 변인으로는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 결혼 연한, 연애결혼 여부, 자녀수, 월평균 수입, 맞벌이 유무, 가족형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를 측정했다.

#### 주장성척도

주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Ratus(1973)의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 Behavior"를 번안해서 사용했다. 이 질문지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가를 6점 척도(-3점~3점)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전체 점수 범위는 -90~90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5였다.

#### 공격성척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Buss와 Perry(1992)의 "The Aggression Questionnaire"를 번안해서 사용했다.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0점-4점)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전체 점수 범위는 0점~11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공격적임을 반영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9였고, 9주 간격으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상관관을 구했을 때,  $r=.8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일상생활스트레스척도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The Hassles Scale"을 번안, 수정해서 사용했다. 원 척도는 Kanner,

Coyne, Schaefer 및 Lazarus(1981)에 의해 개발되었다. 원 척도의 문항은 총 114문항이었고, 번안 및 문항 선정과정을 통해서 71문항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질문지를 작성했다. 문항은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기혼자들의 평정을 기초로 하여 선정했으며, 우리 문화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은 삭제하고, 국내문화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문항들(예: 명절이나 제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을 추가했다. 원 척도에서는 스트레스를 겪는 빈도를 3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겪는 빈도와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고통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 문항마다 빈도와 심각도에 대해 두 번 씩 평정하도록 했다. 심각도는 4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빈도 .93, 심각도 .94였다. 빈도와 심각도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두 가지 점수를 곱해서 사용했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0점~426점이다.

#### 부부간 문제 체크리스트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겪게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모두 19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이 문항들은 Fincham, Fernandes 및 Humphreys(1993)가 제작한 "Inventory of Relationship Problem" 과 안수진(1997)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 중에서 저자가 선정하여 구성했다. 19개 문항 중 자신이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 가장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두 가지 골라 번호를 적게 했고, 문항들에 포함되지 않는 갈등이 있을 경우는 별도의 칸에 적도록 했다. 또한 체크리스트는 의사소통척도 바로 전에 작성하도록 구성해서 피험자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떠올리면서 자신들의 의사소통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특정 의사소통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 시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로 선택한 방법이다.

#### 의사소통척도

부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제작한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CPQ)"를 번안해서 사용했다. 의사소통척도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질문들은 의사소통의 세 단계(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동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자신과 배우자가 하는 행동이 각 질문에서의 행동 묘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9점 척도 상에 평정하면 된다(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9점: 아주 그렇다). 이 척도의 개발자가 밝힌 하위척도는 5가지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의사소통 패턴을 선정해서 사용했는데, 긍정적 의사소통인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mutual constructive communication)(6문항, 0점~48점)과 네 가지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그것이다. 부정적 의사소통에는 손상적 의사소통(destructive communication pattern)(4문항, 0점~32점), 요구-철회 의사소통(demand-withdraw communication)을 남편과 아내의 경우로 나누어서 본 남편요구 아내철회 의사소통(3문항, 0점~24점), 아내요구 남편철회 의사소통(3문항, 0점~24점), 그리고 상호회피 의사소통(mutual avoidance communication pattern)(2문항, 0점~16점)이 포함된다. 각 하위척도들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긍정 .79, 손상 .85, 요구철회 .71, 상호회피 .67이었다.

#### 부부관계 적응척도

결혼생활 만족도, 즉 결혼생활에의 적응 및 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panier(1976)가 개발한 "Dyadic Adjustment Scale(DAS)"의 우리말 번역판인 부부관계 적응척도(DAS)를 사용했다(이민식, 김중술, 1995). 이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에 따라 0에서 1 또는 0에서 6 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부부간의 의견일치, 관계에 대한 만족, 응집력, 애정표현의 4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인 결혼 적응도를 측정하고 부적응 집단

을 변별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민식과 김중술(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92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만을 사용했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51점이다.

## 절차

결혼한 남녀 230쌍에게 2부의 질문지와 지시문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했다. 2부의 질문지는 각각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작은 봉투에 들어있었다. 지시문의 내용은 실시방법, 두 배우자가 상의하지 말고 질문에 응답할 것, 솔직하게 응답할 것, 질문지를 마친 후 바로 작은 봉투에 넣어서 봉할 것 등이었다. 실시방법은 각자 작은 봉투에 들어있는 질문지를 꺼내서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마친 후에 각자 봉투에 넣어서 봉하고, 다시 큰 봉투에 넣는 것이었다. 설문지는 서울과 부천 소재의 사회복지관 두 곳, 아동문제 관련 연구소, 그리고 대기업의 서울 소재 사무실 세 곳에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배포되었다. 부부의 자료를 함께 모으기 위한 방법은 연구자가 접촉한 배우자에게 간단한 설명을 한 뒤, 설문지 한 쌍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고, 집에 돌아가 부부가 모두 설문지를 작성한 뒤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답례품으로 공중전화 카드를 주었다. 일부 설문지는 연구자의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부부들에게 배부되었다. 설문지 배포에서 회수가 지는 짧게는 2-3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렸다.

## 자료분석

자료분석 절차 다음과 같다. 개인을 단위로 한 분석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고,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구하거나 단순 독립  $t$ 검증 또는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스트레스, 주장성, 공격성 및 의사소통 방식의 영향을 알아보고, 각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스트레스, 주장성 및 공

격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부부의 의사소통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군집분석을 통해 묶여진 군집들이 차별적인 집단으로 묶여졌는지를 파악하고 군집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의사소통 패턴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다음, 파악된 각 군집의 성격을 참고로 군집별 의사소통 점수를 부여했다. 다음에는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에 주장성, 공격성 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에는 SPSS for Window 8.0을 사용했다.

## 결과

###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와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피험자의 결혼만족도는 평균이 99.08(표준편차=17.50)이었다. 남편과 아내를 따로 살펴본 결과는, 남편의 평균이 100.61(표준편차=15.90), 아내의 평균이 98.52(표준편차=19.47)이었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t(246)=0.93$ ,  $ns$ .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계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에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r=.24$ ,  $p<.01$ .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고,  $r=-.19$ ,  $p<.05$ , 연애결혼인 경우의 결혼만족도(평균=102.45, 표준편차=14.62)가 연애결혼이 아닌 경우의 결혼만족도(평균=95.18, 표준편차=16.83)보다 높았다,  $t(135)=2.39$ ,  $p<.05$ .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8, 129)=0.54$ ,  $ns$ , 맞벌이 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에서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t(135)=1.31$ ,  $ns$ .

아내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

표 1. 남편과 아내 자료의 결혼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결혼만족도	연령	학력	연령차이	결혼 기간	자녀수	월평균수입
결혼만족도		-.21*	.19*	-.23*	-.20*	-.27**	-.07
연령	-.07		-.24**	.04	.91**	.54**	.16
학력	.24**	.09		-.14	-.18*	-.22*	-.02
연령차이	-.07	.47**	-.08		.10	.16	.11
결혼 기간	-.10	.89**	.09	.15		.57**	.21*
자녀수	-.19*	.57**	-.09	.16	.59**		.19*
월평균수입	-.09	.35	.08	.21*	.31**	.27**	

\*  $p < .05$ . \*\*  $p < .01$ .

주. 보통 글씨체는 남편의 자료들간의 상관계수, 굵은 글씨체는 아내의 자료간의 상관계수임.

았고,  $r = -.21, p < .05$ ,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r = .19, p < .05$ . 또한 배우자와 연령차이가 많을수록,  $r = -.23, p < .05$ , 결혼기간이 길수록,  $r = -.20, p < .05$ , 자녀수가 많을수록,  $r = -.27, p < .05$ ,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연애결혼인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t(132) = 2.84, p < .05$ ,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t(132) = 2.05, p < .05$ . 그리고 직업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했다,  $F(5, 129) = 8.48, p < .001$ . 직업에서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아내의 직업별 빈도를 살펴 본 결과 주부가 74명으로 여자 피험자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래서 빈도가 적은 노동직( $n=1$ ), 자영업( $n=2$ )을 제외하고, 주부인 경우( $n=74$ )와 그렇지 않은 경우( $n=58$ )로 구분해서 결혼만족도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다.  $t$ 검증 결과, 직업을 가진 주부의 결혼만족도(평균=105.48, 표준편차=1.98)가 직업이 없는 주부의 결혼만족도(평균=92.81, 표준편차=2.11)보다 높았다,  $t(131) = 4.29, p < .001$ .

배우자간의 연령차, 결혼기간, 자녀수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일원변량분석과 중다비교검증을 실시했다. 연령차의 경우, 연령차 범위는 0세에서 11세였고, 3년을 단위로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했다. 아내의 경우, 중다비교검증 결과 연령

차가 0-2세인 집단(평균=101.55, 표준편차=18.30)이 3-5세인 집단(평균=93.56, 표준편차=20.42)보다 결혼만족도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혼기간의 범위는 1년에서 25년이었다. 이를 5년 단위로 네 집단으로 구분했는데, 21년-25년 집단의 빈도가 적어서 16년 이상인 경우를 한 집단으로 구성했다. 중다비교검증 결과, 아내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집단(평균=102.40, 표준편차=14.48)이 6-10년인 집단(평균=93.79, 표준편차=19.85)보다 결혼만족도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녀수의 범위는 0명에서 3명이었다. 남편의 경우엔 자녀가 세 명인 집단(평균=82.67, 표준편차=21.39)이 자녀가 없는 집단(평균=104.00, 표준편차=9.47)이나 한 명인 집단(평균=103.37, 표준편차=15.64)보다 결혼만족도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아내의 경우에는 자녀가 세 명인 집단(평균=76.50, 표준편차=2.12)이 자녀가 없는 집단(평균=106.45, 표준편차=9.97), 자녀가 한 명인 집단(평균=100.00, 표준편차=16.57), 또는 자녀가 두 명인 집단(평균=93.99, 표준편차=21.79)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두 배우자간의 학력차이가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력차이가 없거나 거의 없는 집단과 차이가 나는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 주장성, 공격성 및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남편과 아내의 스트레스, 주장성, 공격성 및 의사소통 방식 변인들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1단계로 스트레스를, 2단계로 주장성과 공격성을, 그리고 3단계로 각 의사소통 방식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의 결혼만족도 변량의 13%를 남편의 스트레스와 아내의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F(2, 101)=7.77, p<.001$ . 이중 남편의 스트레스만이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beta = -.29, p<.01$ . 2단계에 투입된 남편과 아내의 주장성 및 공격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5%를 설명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F(4, 97)=1.50, ns$ . 그러나 남편의 주장성 변인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beta = .19, p=.$

055. 3단계에 투입된 남편과 아내의 각 의사소통 방식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37%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F(8, 89)=9.31, p<.001$ . 이중 남편의 긍정 의사소통과,  $\beta = .38, p<.001$ , 남편의 손상적 의사소통 변인이,  $\beta = -.50, p<.001$ , 유의미한 설명을 하였다. 세 단계를 통해 투입된 14개의 변인 모두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56%를 설명하였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내의 결혼만족도 변량의 12%를 남편의 스트레스와 아내의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F(2, 97)=6.66, p<.01$ . 이중 남편의 스트레스만이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beta = -.24, p<.05$ . 2단계에 투입된 남편과 아내의 주장성 및 공격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6%를 설명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F(4, 93)=1.79, ns$ . 그러나 아내의 공격성 변인은 단독으로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beta = -.27, p<.05$ . 3단계에 투입된 남편과 아내의 각 의사소통 방식은 아내의 결혼만족도

표 2.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스트레스,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 변인들의 중다 회귀분석

준거변인	투입단계	예언변인	$\beta$	$R^2$	$R^2$ 변화량	F변화량
남편 결혼 만족도	1	남편 스트레스	-.29**	.13	.13	7.77***
		아내 스트레스	-.12			
	2	남편 주장성	.19	.18	.05	1.50
		아내 주장성	-.05			
		남편 공격성	-.13			
		아내 공격성	-.05			
	3	남편 긍정의사소통	.38***	.56	.37	9.31***
		아내 긍정의사소통	.12			
		남편 상호회피의사소통	.04			
		아내 상호회피의사소통	-.06			
		남편 손상적의사소통	-.50***			
		아내 손상적의사소통	.18			
		남편 요구철회	-.04			
		아내 요구철회	-.07			

\*  $p<.05$ . \*\*  $p<.01$ . \*\*\*  $p<.001$ .



표 3.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스트레스,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 변인들의 중다 회귀분석

준거변인	투입단계	예언변인	$\beta$	$R^2$	$R^2$ 변화량	F변화량
아내 결혼 만족도	1	남편 스트레스	-.24*	.12	.12	6.66**
		아내 스트레스	-.16			
	2	남편 주장성	.08	.18	.06	1.79
		아내 주장성	.15			
		남편 공격성	.02			
		아내 공격성	-.27*			
	3	남편 긍정의사소통	.18	.55	.37	8.72***
		아내 긍정의사소통	.43***			
		남편 상호회피의사소통	.17			
		아내 상호회피의사소통	-.15			
		남편 손상적의사소통	-.22			
		아내 손상적의사소통	-.14			
		남편 요구철회	-.02			
		아내 요구철회	.07			

\*  $p < .05$ . \*\*  $p < .01$ . \*\*\*  $p < .001$ .

의 37%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F(8, 85)=8.72, p < .001$ . 이 중 아내의 긍정 의사소통만이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며,  $\beta = .43, p < .001$ , 남편의 긍정 의사소통 변인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  $\beta = .18, p = .08$ . 세 단계를 통해 투입된 14개의 변인 모두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55%를 설명하였다.

####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의 군집분석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보고한 열 가지의 의사소통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로 각 부부의 의사소통 패턴이 어떤 유형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군집 결합 방법은 Ward's method를 사용했다. 군집분석에서는 군집 수를 3개에서 7개까지로 지정해 준 뒤에 생성된 군집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처음 보고된 의사소통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해서 가장 적당하게 묶인 것으로 여겨지는 4개의 군집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군집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 점수들과의 변량분석을 통해 군집의 특징을 정

의했고,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주장성, 공격성,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새로 생성된 네 개 의사소통 패턴 군집의 특징을 알기 위해 각 의사소통 방식에서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구했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를 보면, 네 가지 군집 중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한다고 보고한 군집은 군집 4였다. 이 군집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집단에 속한 남편과 아내는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별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특징이 뚜렷한 집단은 군집 2였다. 군집 2의 부부들은 다른 군집과 비교했을 때, 손상적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정적인 의사소통 모두를 가장 많이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들은 긍정적인 의사소통도 평균 이상으로 많이 보고하고 있다. 이 군집의 의사소통 방식을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군집 3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가장 적게 보고하는 것과,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아내의 경우, 상호회피와 아내 요구 남편철회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한다고 보고했

표 4. 부부 의사소통 네 군집들의 각 의사소통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남편/아내 의사소통	군집1 n=44	군집2 n=31	군집3 n=25	군집4 n=32	전체 n=132	
남편	긍정	23.05(7.51)	22.25(5.91)	15.72(7.18)	31.28(31.28)	23.27(23.47)
	손상	2.25(2.36)	12.61(6.03)	3.88(2.85)	2.94(3.45)	5.16(5.66)
	상호회피	4.57(3.41)	10.48(4.21)	6.84(4.12)	2.50(2.59)	5.89(4.60)
	남편요구	4.50(3.53)	10.16(5.77)	5.88(4.82)	4.28(4.27)	6.04(5.09)
	아내철회	7.23(6.09)	12.55(5.20)	10.08(4.50)	4.13(4.25)	8.27(5.99)
	아내요구					
아내	긍정	22.16(6.32)	23.42(6.13)	12.84(5.71)	32.91(3.86)	23.30(8.66)
	손상	3.25(3.33)	15.39(7.98)	6.08(4.85)	2.59(3.42)	6.48(7.16)
	상호회피	6.05(4.17)	8.68(4.93)	8.72(3.74)	2.00(2.42)	6.19(4.71)
	남편요구	5.09(3.28)	10.65(4.85)	6.80(4.86)	3.81(4.93)	6.41(5.05)
	아내철회	9.91(5.58)	12.94(5.37)	13.56(6.84)	4.13(4.70)	9.91(6.60)
	아내요구					

n= 사례수,

긍정 의사소통 ; 6문항, 점수범위 0점-48점.

손상 의사소통 ; 4문항, 점수범위 0점-32점.

상호회피 의사소통 ; 3문항, 점수범위 0점-24점.

남편요구 아내철회 의사소통 ; 3문항, 점수범위 0점-24점.

아내요구 남편철회 의사소통 ; 3문항, 점수범위 0점-24점.

다. 군집 3은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군집 1은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여기에 속하는 부부들은 모두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평균 수준으로 대답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밖에 부정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적게 보고하고는 있지만, 가장 긍정적이었던 군집 4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군집 1의 의사소통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보통이므로 '소극적 긍정 의사소통 집단'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 각 군집별 결혼만족도, 주장성, 공격성 및 스트레스의 비교

앞에서 확인된 네 가지 의사소통 군집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군집별 결혼만족도, 주장성, 공격성 및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검증을

실시했다. 결혼만족도, 주장성, 공격성 및 스트레스의 각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각 군집별 결혼만족도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F(3, 111)=10.17, p<.001$ , 아내의 결혼만족도 모두에서 군집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3, 106)=12.28, p<.001$ . 남편과 아내 모두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군집 4)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극적 긍정 의사소통 집단,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 그리고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의 순서였다. 결혼만족도가 낮은 두 가지 의사소통 집단에서, 남편의 경우에는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과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간에 결혼만족도 평균이 차이가 없었으며, 아내의 경우에는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에 비해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의 평균이 8.62점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5. 네 군집별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집1 (n=37)	군집2 (n=25)	군집3 (n=22)	군집4 (n=31)	전체 (n=115)
남편	결혼	104.00	92.72	92.36	109.55	100.82
	만족도	(10.91)	(14.22)	(16.58)	(14.98)	(15.56)
	주장성	4.75	2.78	7.11	13.41	7.11
		(15.06)	(17.51)	(23.83)	(20.67)	(19.24)
	공격성	66.86	74.56	72.27	72.16	71.10
	(11.97)	(12.36)	(12.26)	(13.10)	(12.62)	
	스트레스	42.73	51.72	51.45	35.84	44.50
		(33.16)	(28.39)	(36.59)	(17.45)	(28.76)
		군집1 (n=38)	군집2 (n=24)	군집3 (n=20)	군집4 (n=28)	전체 (n=110)
아내	결혼	99.95	92.42	83.80	112.79	98.64
	만족도	(15.09)	(18.74)	(24.94)	(11.14)	(9.79)
	주장성	3.97	6.29	0.67	-2.58	2.21
		(17.91)	(14.49)	(19.10)	(21.42)	(18.84)
	공격성	67.61	76.00	72.15	60.39	68.43
	(13.12)	(15.99)	(9.76)	(12.14)	(14.05)	
	스트레스	56.55	78.17	68.20	62.24	64.90
		(31.75)	(48.62)	(34.42)	(41.44)	(39.24)

n=사례수.

각 군집별 주장성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남편의 주장성 점수와,  $F(3, 111)=1.75$ , *ns*, 아내의 주장성 점수가 군집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3, 106)=1.18$ , *ns*. 중다비교 결과, 남편의 경우에는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의 주장성 점수(평균=13.41)가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의 주장성 점수(평균=2.78)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05$ ). 아내의 경우에는, 주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평균=6.29)이었고,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의 주장성 점수(평균= -2.58)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각 군집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각 군집별 공격성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공격성 점수는 군집간 유의미한 차이의 경향성을 보였으며,  $F(3, 111)=2.22$ ,  $p=.09$ , 아내의 공격성 점수는 군집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F(3, 106)=6.83$ ,  $p<.001$ . 중다비교검증 결과, 남편의 경우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의 공격성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이나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과 별 차이가 없었고, 소극적 긍정 의사소통 집단의 공격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아내의 경우에는,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의 공격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 소극적 긍정 의사소통 집단, 그리고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의 순서였다.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은 다른 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공격성 점수를 나타냈다.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과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간에는 공격성 점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 군집별 스트레스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남편의 스트레스 점수와,  $F(3, 111)=1.85$ , *ns*, 아내의 스트레스 점수가 군집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3, 106)=1.60$ , *ns*. 중다비교 결과, 남편의 경우에는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과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의

스트레스가 나머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과 소극적 긍정 의사소통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아내의 경우,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 그리고 소극적 긍정 의사소통 집단의 순서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둘째, 결혼만족도에 일상적 스트레스, 주장성, 공격성, 그리고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패턴을 가진 부부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 피험자로 참여한 부부들은 이민식과 김중술의 연구(1995)의 피험자로 사용된 정상 집단 부부들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다소 낮았으나(평균 차이=10.7), 갈등 집단 부부들에 비해서는 결혼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평균 차이=22.9). 따라서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은 부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남녀간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각 부부의 결혼만족도 점수의 상관관계수는 .60으로 부부간에 결혼만족도를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DAS를 사용한 국내의 다른 연구들(이민식, 김중술, 1995; 임승락, 권정혜, 199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인 K-MSI(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권정혜, 채규만, 1999)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측정도구의 차이에 기인하는지는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과 결혼 기간에 있어서는 남편의 경우에는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없었으나, 아내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연령에 따른 성차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는 결혼만족도의 성차가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 결혼생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자녀양육, 가사노동, 사회적인 소외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과도 관련될 수 있다. 학력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다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이전 연구(현은민, 1995)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부간 연령차이가 남편의 경우에는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없었으나, 아내의 경우에는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연령차이가 다섯 살 이하인 집단이 가장 높았다. 자녀수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자녀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세 자녀 이상인 부부들이 자녀가 둘 이하인 부부들에 비해 낮았다. 이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경제적 측면, 시간적 측면, 가사노동의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애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연애결혼한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연애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나, 연애결혼이 보다 적극적인 배우자 선택과 관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맞벌이 유무에 있어서는 남편의 경우에는 맞벌이 유무가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없었으나, 아내의 경우에는 맞벌이하는 아내들이 그렇지 않은 아내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결혼생활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편 월수입이나 부부간 학력 차이는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연령, 직업, 학력, 자녀수 및 결혼기간 등이 결혼만족도와 관련된다는 결과는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들을 피험자로 사용했던 임승락과 권정혜의

연구(1998)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이다. 결혼기간을 통제한 후에도 모든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거나 유의미한 상관의 경향성이 있었다.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스트레스, 주장성, 공격성 및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만족도는 의사소통 방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전체 변량의 37%를 의사소통 변인이 설명하였는데, 이는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중에서는 손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스도 의사소통 방식에는 못미치지만 결혼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편의 스트레스였다. 즉 남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아내 자신의 스트레스보다 남편의 스트레스가 관련되는 현상은 앞으로 다른 연구들을 통해 반복 검증하고 그 이유를 찾아볼만한 것이다. 아마도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남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스트레스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가 모두 부모와 친인척들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그러나, 남편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에서의 차이를 그 다음순서로, 감정표현을 그 다음으로, 돈을 그 다음으로 꼽았고, 아내는 감정표현을 두 번째로, 돈을 세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에서의 차이를 다음으로 많이 보고하였다.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주장성이나 공격성이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남편의 경우에는 주장성이 높은 남편이 결

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아내의 경우에는 공격성이 높은 아내가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주장성이 높을 때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만족을 더 느끼고, 아내는 공격성이 낮을 때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더 많은 만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주장성과 공격성은 결혼만족도 전체 변량의 5% 내지 6% 정도만을 직접 설명하였지만, 의사소통 방식 변량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였다. 각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남편의 상호회피 의사소통 변량의 20%를 설명하였으며, 아내의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변량의 14%를 설명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주장성이나 공격성은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의사소통 방식의 매개를 거쳐서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자료를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모델 검증 방법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편과 아내의 자료 모두 의사소통이 주장성이나 공격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정이 검증되었다. 즉 남편이나 아내의 주장성 또는 공격성이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경우에는 주장성과 공격성이 모두 의사소통의 매개를 거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내의 경우에는 공격성만이 의사소통의 매개를 거쳐 결혼만족도를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인은 남편의 경우 주장성과 공격성인 반면 아내의 경우에는 공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에는 공격성이 낮고 주장성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적게 사용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며, 아내의 경우에는 공격성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 이같이 주장성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내의 주장성이 남편의 주장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던 것을 들 수 있다. 주장성은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대화방식을 말하며, 서양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는 바람직한 대화방

식이라고 여겨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자기 주장적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성차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내들이 주장성을 공격성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아내의 주장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평균이 2.80, 30대의 평균이 1.83, 그리고 40대의 평균이 -17.23으로 40대 아내의 평균이 40대 이전의 아내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그리고 40대 아내의 경우에는 자기주장성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p < .05$ ). 이같이 연령에 따라 아내의 주장성이 차이가 나는 것과 아내의 주장성이 자신의 의사소통방식이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부부간에 어떤 의사소통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을 군집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는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 집단',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보이며 긍정적인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보이는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적고 부정적인 의사소통 특히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보이는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 그리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보통 정도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비교적 적은 '소극적 긍정 의사소통 집단' 등 네 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은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가장 바람직한 의사소통 패턴을 보이는 이 집단의 특징으로 남편은 주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아내는 공격성이 가장 낮으며 주장성도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스트레스의 면에서는 남편의 스트레스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으나, 아내의 스트레스는 중간 정도에 해당되었다. 이 집단은 주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펼치면서 의사소통을 주도하고 아내는 이에 불만없이 따라가는 형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에 속한 부부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

정을 표현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타협안과 해결책을 찾는 위주의 대화를 하고, 대화 이후에도 자신들의 대화에 대해 만족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능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은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요구철회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들(Christensen, 1987, 1988; Christensen & Shenk, 1991; Christensen & Sullaway, 1983;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소통 패턴을 보이는 이 집단은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중에서는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방식을 가장 많이 보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집단은 남편의 경우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에 비해 공격성 수준은 비슷하였으나 주장성 수준이 낮았으며, 아내의 경우 공격성 수준이 높았고 주장성 수준은 다소 높았으나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집단의 부부들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타협안과 해결책을 찾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내가 요구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한편 남편은 대화하기를 피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아내의 공격적인 대화방식과 남편의 회피는 대화 이후에 누구도 대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전투적 의사소통 집단 역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 집단은 다양한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두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부부들이라고 보여지며, 그 방식에 있어서 간혹 긍정적인 방식으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 헐박 같은 과격한 상호작용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의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의 공격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남편의 주장성은 가장 낮은 반

면 아내의 주장성은 가장 높았다. 아내와 남편의 스트레스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 또한 특징적이다. 이 집단의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요구철회 의사소통 집단보다 높은 것은 이 집단의 아내들이 주장성이 더 높은 것과 관련되는 것 같다.

소극적 긍정 의사소통 집단은 결혼만족도가 보통 수준에 해당되었다. 이 집단은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모두 평균 수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집단은 별 특징없는 의사소통 방식을 보이는 평균적인 많은 부부들이 포함되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도 가장 많은 부부가 이 집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주장성, 공격성 및 스트레스에서도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남편의 공격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된 결과는 결혼만족도에 부부간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며,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은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몇가지로 구분하여 긍정적인 의사소통보다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도 보다 세분화하여 다룰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부부간에 어떤 의사소통 패턴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고, 요구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비롯하여 몇가지의 의사소통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가 부부간의 실제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남편과 아내의 정서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개인특성이나 스트레스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의사소통 방식이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중다변인 모델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개인특성 변인으로 주장성과 공격성을 다루었는데,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

는 변인으로 남편의 경우 공격성과 주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아내의 경우에는 공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부부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부부 문제의 상담이나 치료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가정내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가정이 많고, 남편의 지위가 아내의 지위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을 것이다. 또한 유교적인 전통으로 인해 여성들의 자기표현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대화 패턴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고 부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각 의사소통 패턴에 따라 다른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다. 각 의사소통 패턴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공격성을 조절하고 주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의 비중을 달리 적용시킨다면 부부관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 각자가 공격성과 주장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검토하여, 좀더 기능적인 방향으로 주장성과 공격성을 사용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를 직접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부간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대화훈련이 부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을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했으므로, 부부간의 실제 의사소통 방식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의사소통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을 직접 관찰해서 자기보고와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제한된 연령이나 학력 등을 가진 부부들이어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성이 다른 여러 피험자들에게 반복 검증을 통해 이 연구의 결과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현선 (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4호, 71-83.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도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권 1호, 123-139.
- 김계현 (1994). 부부갈등의 네 가지 측면. *학생연구*, 제29권 1호, 26-33.
- 김인자 (1986).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제 3판). 중앙적성출판사.
- 안수진 (1997). 신경증적 경향성과 결혼만족도: 책임 귀인 양식과 문제해결행동의 매개변인 검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민식, 김중술 (1995). 부부관계 적용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91-299.
- 이정순 (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경 (1992). 주장훈련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 및 주장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승락, 권정혜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 성차, 요구 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 *한국심리학회 '98 연차대회 학술 발표 논문집*, 109-124.
- 현은민 (1995). 부부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 *안동대학교 논문집*, 제 17호, 69-79.
- Albert, R. E., & Emmons, M. L. (1970). *Your perfect right: A guide to assertive behavior*. CA: Impact.
- Bandura, A. (1973). *Aggression*. New York: Prentice Hall.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8).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in close relationships: A contextual model of marriage as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13-721.
- Burleson, B. R., & Denton, W. 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marital satisfaction: Some 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84-902.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hristensen, A. (1987). Detection of conflict patterns in couples. In K. Hahlweg & M. J. Goldstein (Eds.), *Understanding major mental disorder: The contribution of family interaction research* (pp. 250-265). New York: Family Process Press.
- Christensen, A. (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 A. Fitzpatrick(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pp.31-52). Philadelphia, PA: Multilingual Matters.
- Christensen, A., & Heavey, C. L. (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 Christensen, A., & Shenk, J. L. (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al,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58-463.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3). Assessment of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 in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653-660.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sychology, Los Angeles.
- Fincham, F. D., Fernandes, L. O. L., & K. Humphreys, K. (1993). *Communicating in relationships: A guide for couples and professionals*.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anag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Lazarus, A. A. (1971). *Behavior therapy and beyond*. New York: McGraw-Hill.
- Lee, D. Y., & Hallberg, E. T., & Hassard, H. (1979).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aggression behavior of adolesc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459-461.
- Noller, P., & White, A. (1990). The validity of the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478-482.
- Ratus, S. A. (1973). A 30-item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 behavior. *Behavior Therapy, 4*, 398-406.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taub, E. (1971). The learning and unlearning of aggression. In J. L. Singer (Ed.), *The control of aggression on violence(pp.93-124)*. New York: Academic Press.
- 원고접수일 2000. 1. 17  
수정원고접수일 2000. 3. 30  
게재결정일 2000. 5. 17 ■

## **The Relation between Assertiveness, Aggressiveness, Daily Hassles,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ung Eun Lee ·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o identify how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re influenced by assertiveness, aggressiveness, and daily hassles, 146 married couples' data regarding the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ness Behavior,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the Hassles Scale, the Relationship Problem Checklist, the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and Dyadic Adjustment Scale were collected. The results showed that marital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variou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children, education, occupation, and love marriage. Second, marital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marital communication, daily hassles, husband's assertiveness and wife's aggressiveness. By cluster analysis, four marital communication patterns(constructive, demand-withdraw, combative, passive positive) were identified. The couples with constructive communication pattern showed the best marital satisfaction level and the couples with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pattern showed the worst marital satisfaction level.